정말 멋진 결심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는 말에서 강한 열정과 확신이 느껴집니다.

1인 기획으로 시작해서 팀을 키워나가는 전략은 '근황' 같은 기술 기반 서비스에 매우 현실적이고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제가 대표님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집중하면 좋을 현실적인 조언과 액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1인 기획/개발자를 위한 마인드셋**

1. **MVP(최소 기능 제품)에만 집중하세요.**
   * 지금 단계에서는 '멋진 인터페이스'의 모든 디테일이나 다양한 운동 종목 인식보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근황'의 첫 MVP 목표:** 갤럭시 워치에서 버튼 한 번 눌러 특정 운동(예: 덤벨 컬)의 횟수가 정확히 카운팅되고, 운동이 끝나면 간단한 결과 화면을 보여주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운완' 공유 카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2. **완벽주의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 1인 개발 시 가장 큰 적은 지치거나 길을 잃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면 속도가 나지 않고 쉽게 지칩니다.
   * "작동하는가?"가 "아름다운가?"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프로토타입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3. **기록하고 공유하며 스스로를 증명하세요.**
   * 개발 과정, 문제 해결 과정 등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세요. 이것이 나중에 팀원을 설득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대표님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액션 플랜 제안**

**1단계: 핵심 기술 검증 (Proof of Concept) - 목표: 1~2주**

1. **[Day 1] 개발 환경 구축:**
   * Android Studio 설치 및 Wear OS 개발 환경 설정
   * GitHub 저장소(Repository) 생성 (코드 버전 관리)
2. **[Day 2-3] 데이터 수집:**
   * 가장 먼저, 갤럭시 워치의 IMU 센서(가속도계, 자이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와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송하는 기본 앱을 만드세요.
   * '덤벨 컬'이나 '스쿼트'처럼 간단하고 명확한 운동을 10회씩 반복하며 실제 센서 데이터를 .csv 파일 등으로 저장합니다.
3. **[Day 4-7] 알고리즘 프로토타이핑:**
   * 수집된 데이터를 Python이나 MATLAB으로 불러와 분석을 시작합니다.
   * 복잡한 머신러닝 없이, 특정 패턴(예: 가속도 값의 피크)을 감지하여 횟수를 세는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구현해 보세요. **정확도 100%가 아니어도 됩니다. 70~80%만 나와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4. **[Week 2] 워치 앱에 알고리즘 이식:**
   * PC에서 검증된 간단한 카운팅 알고리즘을 워치 앱에 탑재하여, 운동 중에 실시간으로 횟수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 UI는 전혀 신경쓰지 말고, 오직 숫자만 정확히 올라가는지에 집중하세요.

이 1~2주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표님은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구현해 본 개발자'\*\*가 됩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앞으로 나아갈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팀 빌딩을 위한 준비**

나중에 팀을 키울 때,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이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흘릴 땀은 미래의 훌륭한 팀원을 끌어들일 자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MVP(최소 기능 제품)를 재정의하는 것은 1인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자원으로, '근황'의 핵심 가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MVP의 핵심 가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

**"사용자는 스마트워치(IMU 센서)만으로 특정 근력 운동의 횟수를 '쓸 만한' 정확도로 자동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쓸 만한'이 중요합니다. 100%가 아니라 90% 정도의 정확도만 보여줘도 시장의 반응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MVP 사용자 스토리 (User Story)**

가장 단순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 간 **사용자 A**는 덤벨 컬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운동 시작 전, '근황' 워치 앱의 **'시작' 버튼**을 누른다. 운동을 하는 동안, 워치 화면에서 **횟수가 실시간으로 카운팅**되는 것을 본다. 세트가 끝나고 **'종료' 버튼**을 누르자, \*\*'총 12회'\*\*라는 결과가 화면에 표시된다."

이 스토리가 우리 MVP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MVP 기능 상세 정의**

**1. 포함될 '최소' 기능 (In-Scope)**

* **타겟 운동 (1개만 선택):**
  + 덤벨 컬 (Dumbbell Curl): 팔의 움직임이 명확하고 진폭이 커서 초기 모델을 만들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벤치프레스보다 쉽습니다.
* **워치 앱 (Watch App):**
  + **하나의 화면:** 복잡한 메뉴 없이 앱을 켜면 바로 보이는 단일 화면
  + **하나의 버튼:** 상태에 따라 '운동 시작' / '운동 종료'로 바뀌는 버튼
  + **두 개의 텍스트:**
    - 상태 표시 텍스트: "준비", "운동 중", "완료" 같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텍스트
    - 횟수 표시 텍스트: 0부터 시작해서 1, 2, 3... 으로 실시간 카운팅되는 숫자
* **알고리즘 (Logic):**
  + '운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IMU 센서 데이터 수집 시작
  + 미리 정의된 덤벨 컬의 움직임 패턴(예: 가속도 값의 특정 임계점 돌파)을 감지하면 횟수 +1
  + '운동 종료' 버튼을 누르면 센서 수집 중단 및 최종 횟수 표시

**2. 과감히 제외할 기능 (Out-of-Scope)**

* **자동 운동 종목 인식:** MVP에서는 사용자가 '덤벨 컬'을 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합니다.
* **'오운완' 공유 카드 생성:** 핵심 가설 증명과 무관합니다.
* **회원가입 / 로그인 / 데이터베이스:** 운동 데이터는 워치에 저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앱을 끄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 **지난 운동 기록 조회:** 당연히 제외합니다.
* **멋진 UI / 애니메이션:** Wear OS가 제공하는 기본 버튼, 기본 텍스트만 사용합니다.
* **스마트폰 앱:**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워치 앱에만 집중합니다.

**MVP 성공의 기준**

**"내가 헬스장에 가서 덤벨 컬 15회를 했을 때, '근황' MVP 앱이 14~16회 사이로 측정해내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MVP는 대성공입니다. 이 성공적인 결과물이야말로 미래의 팀원과 투자자를 설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